

여자축구, 17년 만의 우승 '먹구름'

동아시아컵 개막전 일본에 1-2 지소연 터닝슛 동점골 빛바래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개막전에서 일본에 졌다.

폴리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오후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동아시아컵 개막전에서 1-2로 패했다.

전반 33분 미야자와 히나타에게 실점한 한국은 후반 14분 지소연(수원FC)의 터닝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으나 후반 20분 나가노 후카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첫판에서 참가국 중 가장 강한 팀으로 평가되는 일본에 패하면서 한국의 17년 만의 동아시아컵 우승은 어려워졌다.

한국은 2005년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뒤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과 역대 전적에서 4승 11무 18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5년 중국 우한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경기(2-1 승) 뒤 한일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동아시아컵에서는 4팀이 풀리그를 치러 순위를 가리는 가운데 한국은 23일 오후 7시 중국, 26일 오후 4시 대만을 차례로 상대한다.

벨 감독은 정예 라인업을 내세웠다.

선봉에 손화연과 최유리(이상 현대제철)를 배치했고, 조소현(토트넘)과 지소연, 추후주(수원FC)에게 중원을 맡겼다.

이영주(마드리드CFF), 심서연(서울시청), 임선주, 김혜리, 장슬기(이상 현대제철)가 수비진을 구성하고, 김정미(현대제철)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한국은 전반 3분 프리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이영주가 팀의 첫 슈팅으로 연결한 것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공격을 펼쳤다.

결국 전반 33분 나루미야 유이가 오른쪽에서 내준 킥백을 미야자와가 오른발 눈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일본의 선제골을 넣었다.

앞서 나루미야가 공을 잡기 전 한국 수비진이 공을 충분히 견어낼 수 있었지만, 동선이 엉키면서 결국 공이 나루미야에게 향했다.

전반 36분 최유리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날린



19일(현지시간)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EAFF E-1 챔피언십 여자축구대표팀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조소현이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등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던 한국은 '지메시' 지소연 덕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14분 오른쪽을 돌파한 추후주가 최유리를 겨냥해 시도한 패스가 그대로 흘러 페널티지역 안에 있던 지소연에게 향했다.

일본 수비진 3명이 달려붙었지만, 지소연은 빠른 몸놀림으로 수비망을 무력화하고 오른발 터닝 슈팅을 골대 왼쪽 하단 구석에 꽂았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은 인전 현대제철에서 된 '지한파' 미드필더 나가노의 골로 다시 승기를 잡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후반 21분 지소연이 골 지역 정면에서 날린 슈팅이 골키퍼 손과 크로스바를 연달아 맞고 골대 밖으로 향해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36분 박은선의 헤딩 패스, 지소연의 킥백에 이어 조소현이 골 지역 정면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 위로 살짝 지나갔다. /연합뉴스



2022 전국생활체육축전 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일궈낸 광주 남자배구팀.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광주남배구, 우승만큼 값진 '파란'

생활체육축전 준우승 '역대 최고' 4강서 우승후보 경기 제압하기도

광주 남자배구팀이 전국생활체육축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일궈냈다.

19일 광주시배구협회(회장 전갑수)에 따르면 2022 전국생활체육축전 배구대회가 지난 16-17일 이틀동안 충북 단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전국생활체육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종목별로 시도 대표팀을 구성해 자웅을 겨루는 대회로 '생활체육 전국제전'으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재개된 생활체육축전에서 광주 남자배구팀은 처음으로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걸었다.

결승에서 경남과 만난 광주는 탄탄한 공수 플레이로 1세트 초반부터 접전을 펼쳤다. 특히 공격에서 중앙 속공과 좌우측 오픈 공격을 적절히 섞어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경남의 수비진이 견고한 데다, 평균 연령 7세차에 따른 체력 열세로 매 세트 1-2점 차로 끌려가면서 세트스코어 0-2(19-21, 18-21)로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광주배구는 생활축전 참가 사상 첫 배구종목 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4강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힌 경기 대표팀을 세트스코어 1-2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프로선수 출신 3명이 포진한 경기를 맞아 전원 생활체육동호인들로 구성된 광주는 공수 플레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대어를 낚는 데 성공했다.

광주는 1회전에서 대구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제압한 뒤 2회전에서도 부산을 2-0으로 이기고, 4강에 올랐다.

2018년과 2019년 대회 4강전에서 경기에 잇따라 경기에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한 아픔도 깨끗이 씻어냈다.

한편 전남 남자배구팀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경남과의 4강전에서 첫 세트를 빼앗는 등 선전했으나 2-3세트를 연달아 내주면서 1-2로 역전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I페퍼스, 8월 프로배구 컵대회 첫 출전

13일 순천시 개막...일본 V리그 우승팀 히사미쓰도 참가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프로배구 컵대회에 첫 출전한다. 해외 구단도 4년 만에 참가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9일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에 지난 시즌 일본 V리그 우승팀인 히사미쓰 스프링스가 출전한다"고 전했다.

히사미쓰는 지난 시즌 일본 프로배구 디비전1(1부리그)에서 23승 10패의 성적으로 3위를 차지했고,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JT마블러스를 꺾고 우승한 강팀이다.

해외 초청팀이 컵대회에 참가한 건 2018년 남자부 JT 선더스(일본), 여자부 EST(태국), 베티빙

크(베트남) 이후 4년 만이다. 히사미쓰는 2007, 2009 한일 V리그 탐매치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다.

이번 대회엔 '제7구단' 페퍼저축은행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지난해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은 선수단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지난해 컵대회엔 출전하지 못했다.

여자부는 히사미쓰, 페퍼저축은행의 참가로 지난해보다 2개 팀이 늘어난 총 8개 팀이 경쟁한다.

이번 대회엔 국내 무대로 복귀한 김연경(흥국생명)도 참가할 예정이라 큰 관심을 끈다.

여자부 경기는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다. 남자부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국군체육부대(상무)가 참가해 총 8개 팀이 경쟁한다.

한편 한국배구연맹은 18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와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순천 팔마체육관 대관을 비롯해 행정업무 및 관중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광주스쿼시 김가혜 金

광주시체육회 스쿼시팀 베테랑 김가혜(사진)가 '제16회 회장배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가혜는 최근 전북체육회관 내 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결승에서 인천 영화영(국내 랭킹 1위)을 3-2로 제압하고 1위에 올랐다.

김가혜는 '제6회 광주광역시장배 전국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김가혜는 32강 부전승, 16강 경남 락다연(3-1 승), 8강 울산 서하민(3-1 승) 등을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는 같은 팀 송동주를 3-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송동주는 올해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광주시체육회에 입단한 루키다.

김가혜는 결승전에서는 날카로운 드라이브샷과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을 앞세워 최정상에 등극했다. 김가혜는 "8월에 열리는 코리아오픈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체육중, 광주전국수영선수권 선전

금1·은2·동1개 획득...내년 소년체전 활약 다짐

광주체육중학교 가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정건우(2년)은 지난 16-18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중학부 평영 20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25m를 남기고 특유의 막판 스피트를 발휘해 2분 19초 76의 기록으로 광중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평영 50m에서도 30초 1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1개를 추가했다.

송지훈(3년)은 접영 200m에서 2분 09초로는 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학교 수영선수단. 정광일(왼쪽부터) 지도자, 이준재 교장, 정건우 선수, 김지은 감독, 김형주 교감. <광주체육중 제공>

유석민(1년)은 자유형 800m에서 8분 40초 1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지은 수영감독은 "내년 소년체육대회에서도 광주 수영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신나는 국악여행.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광주국악상설공연.